

탄소시장 협력 국제워크숍 개최

지식경제부는 세계은행과 함께 3월 9-10일 서울 무역센터에서 <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기계의 역할>을 주제로 국제워크숍을 개최한다.

미국, EU, 일본 등 선진국과 중국, 인디아, 인도네시아, 멕시코에서 온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 관련 정부 관계자와 국제에너지기구(IEA)의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한다.

3월9일 열리는 토론 주제는 ▲국가별 배출권 거래 경험 소개 ▲에너지 효율목표 달성을 위한 시장의 역할이며, 10일에는 ▲시장기계 활용을 위한 준비 ▲시장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·조건 평가와 지원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.

한국은 에너지관리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록·인증제도로 발행된 KCER을 이용한 자발적 탄소시장 운영 현황을 발표한다.

<화학저널 2010/03/09>